

제 89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8.10.31)
Art as Product vs. Art as Process:
A Comparison of the Musical Tradi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이병원
하와이대학 민족음악학 교수

무형문화에는 완제예술과 과정예술의 개념이 있으며, 이는 각각 딱 짜여진 상자와, 융통성이 있는 자루에 빗낼 수 있다.

서양적 완제예술의 전통은 악보에 의한 엄격한 재현을 의미한다. 일본적 완제예술의 전통은 이에모토의 사회, 경제적 합리성과 음악적 이에모토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코토 음악의 야마다파나 이쿠타파 등 일본 전통 음악에는 파벌이 존재하며, 파벌에 따라 스승의 음악을 그대로 모방하는 방식이 보통이다.

한국적 과정예술의 전통으로는 도제살이 전수방법이 있으며, 음악적 계보와 같은 파벌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무한대의 변주와 즉흥연주의 가능성이 많은 창조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음정과 음고의 변화가 있으며, 다양한 특성의 음색이 있다.

현대에 들어와, 한국음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정예술로부터 완제예술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양음악의 영향으로써, 구전음악의 악보화와 악보에 의한 연주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또한 일본으로부터 온 인간문화재 제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로써 음색이 변화하기도 하는 현상이 나오기도 한다.

<Q&A>

Q. 음악도 사회와 함께 변하는데, 무형문화재 제도는 그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제도 아닌가?

A.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는 너무 일본을 그대로 모방한 경향이 있다. 과정예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살펴봐야 한다.

Q. 무형문화재제도에서 음악부문을 빼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인가?

A. 그렇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일본식의 완제예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한국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 또한, 무형문화재에 선정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인해, 선정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Q. 일본보다 한국에서 재즈나 크로스오버의 장르가 더욱 인기가 있는 것도 완제예술이나 과정예술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바가 있는가?

A. 그렇다. 일본은 재즈연주도 전형적인 면이 있으나, 한국은 즉흥적인 연주에 전통적으로 능하다.